제325회국회
(임시회)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0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4년6월12일(목)

장 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현안보고
   가. 국제경기대회 안전점검 관련

심사된 안건

1. 현안보고 ····· 1
   가. 국제경기대회 안전점검 관련

(11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재윤 우리 특위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국회 제10차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현안보고

가. 국제경기대회 안전점검 관련

(11시13분)

○위원장 김재윤 의사일정 제1항 국제경기대회 안전점검에 관한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에 대한민국 곳곳에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경기대회는 안전이 최우선돼야 됩니다. 국제경기대회가 개최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우리의 국제신인도도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이야말로 국제경기를 개최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 19일 개최될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해서 개최를 준비 중인 여러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해외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대신하여 김종 제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님 나오셔서 오늘 현안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입니다.

존경하는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김재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안전·보안 대책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안전한 사회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보안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많은 사람이 한곳에 모이는 대형 스포츠 시설은 시설

안전사고나 테러 등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많은 관심과 철저한 예방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보고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 자리를 통해 국제경기대회 안전·보안 대책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창동계올림픽및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국제경기대회 안전·보안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의 종합적인 안전·보안 대책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의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와 정부기관 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이 될 수 있도록 안전·대테러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대회 준비단계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대회 개최 전 종합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부합동점검단은 대회 관련 시설, 선수단 안전에 대한 보안체계 점검 및 경기장 주변 외부 취약요소 점검 그리고 선수·임원·보도진·종사자·관람객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안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인천시, 조직위원회는 인천아시안게임을 역대 최고의 대회로 기억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경기대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안전점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조직위원회는 각 경기장 등 25개의 주요 경기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추락·전도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였고 지난 6월 1일에 열린 주경기장 테스트 이벤트 전에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등과 함께 주경기장 가변석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시도 5월 중순에 소년체전을 준비하여 문학수영장 등 경기장 12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장마철을 맞아 자연재해로 인해 경기관련 시설이 훼손되거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인천시, 협력도시 및 조직위원회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현재 국무조정실과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기간 중에도 일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조치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 안전한 아시안게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정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주체가 된 대테러·안전대책본부가 지난 3월에 발족하여 국정원, 군경, 소방당국 및 인천시 등이 대테러·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가 임박한 8월부터는 기구 확대를 통해 대테러·안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회 시설에 대한 유관부서 합동 실사, 비상 매뉴얼 보완 그리고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대회 운영인력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테스트 이벤트와 예행연습을 실시하여 비상시 행동요령이 몸에 체화되도록 하여 일사분란한 대응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23개 중 21개를 연계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선수 및 임원·관람객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연쇄 전도사고나 추락사고, 구조물

충돌사고, 누전 및 감전사고 등 사고유형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비상대책반의 운영을 통해서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보안대책입니다.

대회 시설별로 사전 점검을 통해 대회 전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선수촌·공식 호텔·경기장 등 장소별·상황별 비상안전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대회 시설별로 안전위해요소검사를 실시하였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테러방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조직위와 안전대책본부가 합동으로 현장 통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대회 전까지 안전위해요소 책임관리제를 운영하고 유관기관 시설별 정밀 안전 검측을 실시하여 사고 없는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으로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안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대회는 37개 경기장 중 33곳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고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양궁장 등 4개 경기장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3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도 타 대회와 마찬가지로 안전을 최상위 목표로 건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공사, 감리단 등과 함께 준공 시까지 무재해공사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 시행하였고 공사 중에는 안전관리계획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내년 5월 중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총괄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보안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정부와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보안대책의 수립을 위해서 조직위원회는 대회직접시설 내부와 출입을 통제하고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는 대회직접시설 외곽의 경비, 치안, 화재 등 재난 예방을 맡아 대회 시설에 대한 위험 최소화와 선수단,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에 안전대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경기장 실사와 시설별 출입구역 설정 등을 통해 보안대책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보안업체 선정과 안전요원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차질 없는 보안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10월에 치러질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 안전을 위해서 신축경기장의 경우 안전관리TF를 구성하여 시설 건축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주 단위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경기장을 위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경기장별 안전요원을 사전 확보하고 경기장 안전 실태를 사전에 종합 진단하는 등 경기장 시설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0쪽 보안대책입니다.

대회의 보안 확보를 위해 군 주도의 경호 경비를 주축으로 보안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등 대테러 유관기관 및 범정부 안전대책위원회를 올해 5월부터 구성, 운영하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별 경호안전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고 3단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보안대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 관련 안전·보안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사고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기장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와 보수를 통해 관람객 및 선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뮬러원 지원법에 근거한 합동안전점검을 대회 개최 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정밀 안전점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보안대책입니다.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는 대회 대테러 보안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 국정원, 경찰청 등 주요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기관의 합동실무협의회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겨울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입니다.

신축경기장의 경우에는 설계 단계부터 안전·보안 기준을 강화하여 반영할 예정이며 경기장 건설공사현장의 안전 관리 및 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설계, 착공, 공사 등 진행과정에 따라 추후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며 경찰·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기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점검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보안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안정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보안대책입니다.

특별법 및 국가대테러 활동 지침 등에 의거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장인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와 대테러·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대회의 대테러·안전 활동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IOC 및 IPC 관련 부서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첨단 보안장비 및 군·경찰 경비인력을 배치하여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 대회에 대한 안전·보안 대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과 보안대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책을 바탕으로 안전·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부족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반영하여 최선의 예방대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김종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관계자 분들도 자리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한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성 위원 내년도에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리는 경북 문경·예천 출신의 이한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전·보안 대책에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처음 들어갔습니다. 하여튼 처음 들어간 만큼 관심도 좀 많이 가져 주시기를 우리 차관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이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늘 보고서에 세계군인체육대회가 빠져 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한성 위원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 주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그리고 많이 준비를 잘하셨는데 우선 몇 달 후면 앞으로 인천아시안게임이 다가오지요. 그게 9월 17일부터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9월 19일부터입니다.

○이한성 위원 9월 19일부터?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한성 위원 그때 태풍이 도래할 이런 것은 점검 안 했습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되고, 태풍이 몇 개나 올지 지금쯤 빅데이터가 있다면 혹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점검을 한번 하셨다는데 이게 참 세월호도 그렇고 늘 벌어지는 일이 납품하거나 검수하는 과정에서 엉터리가 많은데도 눈감아 주거든요, 뒤로 인사 받고. 그래서 불량자재 또 시공불량 이런 것을 그냥 눈감아 주고 뒤로 식사 한번 하고 그냥 이게 이렇게 하는 수가 많아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텐데 특히 가설자재가 많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아주 영구불변한 시설이 아니고 임시 가설로 했다가 해체하고 그렇게 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주경기장의 일부가 그렇고요.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너무 고정시설로 쓰면 그것 나중에 쓸모가 별로 없을 때는 애물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럴 경우 조임이라든지 이음새 이런 게 신통치 않아 가지고 문제

가 생기는 것 참…… 몇 번 재삼재사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 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한성 위원 그리고 계획을 6, 7월 달에 안전취약시설하고 안전점검 미실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매뉴얼을 보완하고 하시겠지요. 아마 우리나라가 요즘 두 달에 한 번씩 열립니까? 민방위훈련 열리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한성 위원 그래서 길 가는 사람 차 세우고 해 가지고 다 지하통로로 가도록 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훈련 잘 받지 않아도 허드슨강에 비행기 추락했을 때 보면 기장이 참 안전하게 승객들을 유도하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 주기적으로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빠지고 나면 이게 속수무책입니다. 훈련 따로 실제 상황 따로,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점검을 할 때는 비상조치매뉴얼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현장에 가서 그 현장 현장마다 그 현장에서 일어날 상황을 예상을 하고 그때 배치될 인력을 보내서 실제 한번 움직여 보면 어떤 허점이 나오는지 동선상에 혼란이 생기는 건지 또 장소가 협소해서 이동에 불편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도상훈련도 하고 실제로 몇 번 반복해 가지고 맨 마지막에는 그 현장책임자는 전권을 위임을 받아야 돼요.

이것을 컨트롤타워에 보고했다가 혼선 생겨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딱 전권을 위임받고 본인이 그냥 알아서 다 조치하고 나중에 컨트롤타워에 중간중간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것 언제 중앙에서 지시받고 할 시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말 현장 일선에서 마지막 현장을 보는 사람, 현장 발견하고 문제점을 본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한성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한성 위원 경찰관이 정말 범죄현장에서 볼 때 그 피해자를 그냥 바로 구호하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현장에서 책임자가 전권을 위임받아야 된다, 그 점을 하나 강조드리고.

안전불감증, 안보불감증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사실 위생불감증도 참 심각해요. 위생도 여기에 조금은 관련될 겁니다. 음식점에 가면 음식을 나르는 접시 나르고 국그릇 나르고 하는 분이 손님 신발도 다 가지런하게 해 줘요. 손님 구두 만지다가 씻지도 않고 그 손으로 국 그릇 나눠 주고 하거든요.

또 식당 홀 입구 약간 층이 져 가지고 방 비슷하게 해 놓은 데는, 방구들 해 놓은 데는 신발 신지도 않고 그냥 버선 신고 바닥 밟았다가 올라가서 또 일하고 또 바닥 밟았다 올라오고 해 가지고 온통 홀 바닥에 있는 흙먼지가 테이블 위로 다 돌아다녀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이런 것도 점검해서 외국인들이 위생 관념에 상당히 고양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이 좀 우리 생활 관념상 너무 무관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컨트롤타워가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도 컨트롤타워가 없었다 그러는데 컨트롤타워도 확실하게 책임질 사람을 누구 딱, 조정을 아주 유기적으로 해 줄 컨트롤타워를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식약청하고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요 안전,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성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차관님, 지금 북한이 참석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왔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것 와서 준비하는 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지요? 공동 입장하는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니, 공동 입장은 없고요 우선 북한은 자기네들이 OCA의 멤버로서 출전하는, 1개 국가로서 출전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공동 입장이나 이런 절차 없이 북한은 별도로 입장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협의 중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결론이 났어요, 협의 중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거기에 대해서

협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협의 요청이 아직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러면 우리 문체부 입장에서는 공동 입장의 추진 의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희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냥 한 단일 OCA 멤버로서 출전하는 걸로 저희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거기에 대한 방침이 섰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건 지금 저희 문체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북한에서도 공동 입장에 대한 요청이 아직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백재현 위원 거기에서 요청할 이유는 없을 거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할 거냐,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과거의 사례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남북관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와 관련해서 협의를 그러면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관계 관련 회의는……

○백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국정원과도 협의를 하고 통일부하고도 협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입장을 정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온다는 얘기만 들었고요 엔트리가 어저께 들어왔습니다.

○백재현 위원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이야기를 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타 부처와 같이 관계 기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백재현 위원 이제 며칠 날부터 협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북한이 참여하겠다고 공식 요청한 지가 지금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백재현 위원 한 달 가까이 되면 우리 입장을 정해야지. 통일부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공동입장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지난번에 했던 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제가 보는 모든 국민은 공동입장하기를 원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내 느낌은 그래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공동입장 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남북관계가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고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때일수록 함께 하는 것이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이지요.

문체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그것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고 '북한에서 요청하지 않는다', 무슨 차관이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앞으로 관계 기관하고 종종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좀 더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 입장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 주 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도대체 남의 일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

오늘 안전점검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이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북한이 오는 것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북한 선수단이 왔을 때 어떻게 안전대책을 잘 강구를 할 것인지, 남북관계가 그렇게 썩 매끄럽지가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그에 대한 대책들을, 북한 선수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북한 선수 숙소를 어떻게 보호하고 이런 것부터 준비를 해서 충분한 내용들이 채워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렇게 추진하도록……

○백재현 위원 공동입장 하는 것도 추진해야 될 것이고 북한 선수들의 안전대책과 관련된, 신변안전과 관련된 일들을 정확하게 잘해야 된다고요.

숙소는 그러면 결정 났습니까, 북한 선수들의?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선수들은 선수촌에 들어가는 걸로 결정 나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하여튼 북한선수단에 대한 신변을 정확히 안전조치 할 수 있도록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 봐야 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리고 공동입장과 관련된 입장은 정확히 정리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추진을 해야지…… 국민들의 정서는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와 관련돼서는 신속

하게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대해서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공사는 준공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6월 1일 날 테스트이벤트를 한번 해 봤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주경기장 가변좌석 안전 미비라든가 성화대의 가스 보관과 관련한 문제점 이런 것들 몇 가지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도 보셨어요? 챙겨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챙겨보셨어요, 차관이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챙겼습니다.

○백재현 위원 거기에 기자들이 찍어온 영상자료를 보면 대단히 문제가 있고 보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현장에 기회 있으면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찍어온 영상을 보면, 여기서 틀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어요. 그 지적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저도 단체생활해 봐 가지고 느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안전사고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지금 최소한도 신문이 지적했고 언론에서 이미 지적했던 주경기장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차관이 직접 한번 나가서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윤 백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홍천·횡성 출신의 황영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상으로 볼 때 유관기관 협조체제가 굉장히 잘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저희가 국제대회 지원위원회도 총리 산하에……

○황영철 위원 잘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잘되고 있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현안보고 자료도 보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각 부처 답변을 봤어요.

제가 종합적으로 평가하건대 유관기관 협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만 일단 볼게요, 이게 바로 앞서 있으니까. 소방방재청에다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안전점검 및 대책, 유관기관 협조체계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 봤어요. 방재청 실무자 답변이 이렇습니다. “소방방재청이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로부터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사항이 없고 지금까지 시설안전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답변이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관리에 있어서의 가장 주요한 역할을 소방방재청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황영철 위원 그런데 소방방재청하고 아무런 관계기관 협조가 안 돼 있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소방이 맡은……

○황영철 위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차관님 확인해 보세요, 소방방재청하고 제대로 협조됐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보겠습니다. 문광부가 인천아시안게임 대비 시설안전 및 행사안전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참여한 안전대책회의가 불과 이틀 전인 6월 10일 날 개최된 것으로 돼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 평창동계특위가 이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것이 고지된 이후에 개최됐어요. 이것 땜빵식 아니에요?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 보고자료에 보니까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 차원에서 재난관리시스템 조직도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 조직도가 안 나와 있어요. 조직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여기 조직위의 누가 나와 있어요? 조직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재난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시스템에 대한 조직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점검반 구성하고 대테러 보완대책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재난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조직도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가장 문제됐던 게 그것 아니

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누가 지휘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스템이 안 돼 있으면 우왕좌왕하다가 골든 타임을 또 놓칩니다. 다행스럽게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라면. 재난의 유형별로 도대체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고 종합적으로 누가 컨트롤타워고 누가 현장지휘를 할 것인지 이게 전혀 안 돼 있으면 골든타임을 또 놓쳐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회의를 개최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짚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저도 이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지금 인천아시안게임의 재난대책시스템은 빵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하여튼 유의하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차관님께서 잘 챙겨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기의 수준이라든가 또 책임의 소재가 자치단체이냐 또 중앙부처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재난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조해서 명확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서 재난의 유형별로 누가 무슨 책임을 맡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상으로나 제가 지금 파악해 본 바로는 매우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 하여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지금 황영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소방방재청하고 또 전혀 협력이 안 돼 있고 해양경찰청 등 안전관련 부처나 기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황영철 위원님께서 한번 점검을 했는데 전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전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천아시안게임은 바로 코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인천아시안게임 재난시스템이 매우 심각하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국회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그냥 탁상공론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지적을 이 순간에만 지적받고 끝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차관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광주 서구의 박혜자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위원회에서 들으면서 우리 황영철 위원님 또 백재현 위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해서 저 역시도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소관부서에서 정말 이 문제 철저하게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안전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시설점검에 정말 집중할 것인지, 물론 시설점검은 기본이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사실은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 또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발표내용 보시면 주로 시설 위주 점검이고 또 대테러 대책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부분들도 다 필요한 부분들이지요. 그런데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의 경우에 49개 경기장 중에서 16개는 신설 경기장이에요. 그러면 이 신설 경기장에서 행사가 진행이 되고 또 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도 이런 경기장에서 중복적으로 치러질 텐데 가령 신설 경기장의 이런 안전대책을 점검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가령 발생 여부를 따진다라고 한다면 신설 경기장은 과거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령 발생 여부를 따진다라고 하면 애초에 그 경기장 시설을 할 때 구조적인 결함, 시설상의 문제로 국한되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와서 그것을 고친다고 그러면, 이미 다 지어진 시설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찾아낸다라고 하면 이제 와서 어떻게 고칩니까? 그것

어떻게 하나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구조적인 결함들을 구조변경을 할 건가요? 문제가 어떻게 대처가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새로 신설된 경기장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상황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주로 경기가 개최되는 시기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박혜자 위원 아니, 지금 여기 5쪽에 나와 있는 '인천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 여기에 보면 집중 쏠림에 의한 연쇄 전도사고 발생 여부 또 추락 발생 여부, 구조물 충돌사고 발생 여부 이것 어떻게 점검하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것은 테스트 이벤트 경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관중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시나리오를 대체해서 점검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혜자 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이 발생 여부가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시설구조 변경에 대한 그런 문제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경우에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가령 갑자기 주 출입구에 아이돌 가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한꺼번에 사람이 몰릴 수 있다든가 또 실제 장애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장애인들의 특성상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 대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참 그렇고요.

제가 오늘 한 가지만, 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국제경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경우에는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혹은 입장해서 경기 시작 전에 가령 짧은 영상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대피해 주세요' 우리 보통 영화관 가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짧은 영상을 통해서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고에는 이렇게 피해 주십시오.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 주십시오' 경기 시작 전에 인포메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중요한 국제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경기를 앞두고 사실 공중파 등을 이용해서 대국민들한테 안전교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어떤 안전에 대한 예방교육 또 대응지침 이런 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쯤 공중파를 통해서 광고 형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익광고 형식이 되겠지요. 이걸 통해서라도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전체적으로 높인다거나 대응요령을 홍보하는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현장의 안전관리요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훈련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요,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울산 북구 출신 박대동입니다.

차관님, 지금 제2차관 부임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7개월 됐습니다.

○박대동 위원 우리가 세월호 사고 지금 와서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한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가지고 정말로 두 번 다시 이런 아픔이 없어야 되겠다, 모든 부문의 안전, 재난 예방, 점검하고 시스템 전부 보완해야 되겠다 말씀하셨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대동 위원 100일 앞으로 다가온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기와 관련해서 우선은 이런 재난과 사고가 없기를 바라지만 준비하는 측에서는 철저하고 치밀하게 해야 됩니다. 예방, 그 다음에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 사후수습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조직적인 TF팀이나 이런 게 구성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특히 이것은 유관기관 간의 협조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대동 위원 여기 지금 보고에 보면 테러 쪽은 평창에만처럼 돼 있는데 다른 곳도 전부 다 테러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도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 법에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 시스템은 다 똑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그렇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이 났습니다. 아까 이한성 위원님이나 다른 분도, 황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누가 통제하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대테러는 국정

원에서 중심이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만약 복합적으로 났을 경우에는 누가 통제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복합적인 안전……

○박대동 위원 화재도 나고 연쇄 전도사고도 나고 그런 테러까지 겹쳤다, 그것 어떻게 됩니까?

준비 안 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대동 위원 이처럼 상황이 나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것을 탁상에서만 보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세요.

시설과 관련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관련해 가지고, 관람석이 6만 2818석인데 그중에 반이 넘는 4만 2514석이 가변석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대동 위원 가변석을 왜 만들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사후활용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박대동 위원 다른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일부 경기장은 지금 가변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SBS 인터뷰한 것 중에 보면 인터뷰한 관람객 중에서 애기를 데리고 온 분은 너무 높이가 높아서 위험하게 느껴진다, 무섭다, 이런 애기 들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봤습니다.

○박대동 위원 보완대책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반드시 다시 한 번 짚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대동 위원 또 아까 사전에 전부 다 점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예컨대 평창 같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하게 돼 있지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대동 위원 다른 경기장도 다 주변 시설에 CCTV 장치되어 있습니까? 예컨대 하루 이틀 전에 내가 갔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이상이 없었다 할지라도 바로 전날 아주 조심하는 테러리스트가 침투할 수도 있고, 그러려면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항상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대동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이세요.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내방송 하는 것도 좋고 팸플릿 같은 데서 대피 요령, 응급대처 요령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전부 다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에 몇 번을 누르면 긴급대피 요령과 관련된 안내가 입력이 돼 있어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상황이 떨어지면 각자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각자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걸 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리고 특히 아까 북한선수단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100일밖에 안 남은 상황 같으면, 만약에 북한선수단이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에 하나도 없어야 될 상황이 만약에 벌어질 경우에 오는 파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대비해서 철저하게 재삼재사 점검하셔야 돼요.

아까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보니까 우선 차관님이 거기에 대해서 숙지가 너무 안 되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하나하나 상황이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두 번 다시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말씀 안 나오도록 하려면 실무를 맡으신 분들이 책임지고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휘체계라든지……

끝으로 또 하나, 앞으로 안전 관리 관계가 부처가 옮겨집니다. 그에 대비하는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검토해 두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박대동 위원 소방방재청이 그대로 있을지 다른 데로 바뀔지 안행부에 있던 것이 안전관리처로 넘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유기적이고 아주 긴밀하게 협조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유관기관과의 대응시스템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채널을 통일해 가는 과정에서 하나가 잘리면 그다음에는 대처를 못 하거든요. 그것까지, 아주 복잡

다기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데 대해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박대동 위원 그래서 안전한 국제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기원하면서 특별히 당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박대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익 위원 아까 백재현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 보겠는데요. 남북한 공동입장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된다, 물어봐야 된다 그런 입장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맞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니까 문화부가 어느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관계부처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 위에서 결정 내려 준 대로 따르고 눈치 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바로 그런 태도에 세월호 참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문화부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방침과 입장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려 주셔야지 관계부처 입장에 따라서 그쪽에 지시 내려오는 대로 방침 결정해서 따르겠다 그건 문화부가 아니지요. 문화부가 그러면 왜 있어요? 차관님이 왜 계십니까, 그렇게 일을 하실 거면? 그러면 대통령만 있으면 되지. 세월호에서 그런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아직까지 그런 태도로 일을 하시는 게 말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북관계가 저희 체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입장을 가지고 있어도 아직 결정을 못 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동익 위원 입장은 계시냐고요.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입장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남북한 선수단 공동입장에 대해서 문화부 나름대로의 방침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비공개 방침이라도 가지고 계시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없습니다.

○최동익 위원 없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최동익 위원 저희가 그걸 질타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비공개라도 방침을 가지고 통일부나 국정원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지시 내려온 대로 그냥 기다리고 있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건 지난번 저희가 북한에 역도대회 갔을 때 그때도 저희 국가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시안경기대회에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저희도 그 차원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익 위원 그러면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는 공동입장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해 보지 않았다, 고려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인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동익 위원 제 얘기는 결정된 것 물어본 게 아니고 나름대로의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입장을 전혀 안 가지고 관계부처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겠다는 식의 얘기 하시는 게 옳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세월호 참사를 빚은 정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구조를 못 한 거지요, 위에서 누구누구 구조하라고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장애인아시안게임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최동익 위원 점검 무슨 점검하셨지요? 안전점검,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장애인 안전점검은 저희가 경기장을, 아시안경기대회를 치른 이후에 장애인아시안경기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이 갖춰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했습니다.

○최동익 위원 제가 그 질문 드린 것, 장애인에 대해서는 편의시설만 돼 있지 안전점검은 매뉴얼이나 법이 없어요. 비장애인을 상대로 안전점검은 있는데 장애인 상대로는 우리나라 현행법에 편의시설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2, 3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서나요,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작동이 안 됩니다.

○최동익 위원 작동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최동익 위원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은 어디로 가지요?

그게 이번에 장성 병원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에 의해서 환자분들이 생명을 잃게 된 이유거든요. 현재는 장애인 관련해서 편의시설로 돼 있고 소방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인들을 위한 재난대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아시안게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오는데 특히 실내체육관 같은 데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대책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천에 장애인수련원 건설했을 때 비장애인의 상대가 아닌 장애인을 상대로 어떻게 대피를 할 것인가를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훈련도 하고 있어요, 이천 장애인선수촌훈련원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아시안게임을 유치하고 인천시하고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위험 상황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은 생각조차 안 하고 있으시면서 단지 편의시설 말씀하시잖아요.

편의시설은 잘돼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적에 어떻게 그것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관님이 여기서 편의시설 답변하신다면, 편의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지요.

일반인을 상대로 한 재난훈련 하시면서 장애인 관련해 가지고는 편의시설 점검하시겠다. 그러면 장애인아시안게임 반납하셔야지요, 지금 이 국가 상황에서는.

대책을 찾아 주시고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최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에리사 간사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차관님,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겨울올림픽'이라고 용어가 돼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어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지금 법으로는 동계올림픽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지금 겨울올림픽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용어가 바뀌어서 앞으로 4년간 평창까지는 동계올림픽으로 하지 않고 겨울올림픽으로 쓰게 되는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희는 지금 그렇게 한 번 추진을……

○이에리사 위원 아, 겨울올림픽으로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이에리사 위원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이게 법적으로는 동계올림픽이지만 저희가 지금 여론수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러면 여론수렴이 돼 가지고 이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울올림픽이라고 되는 것은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알겠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안전의 똑같은 얘기를 저는 그냥 되풀이 안 하고 싶고……

우리가 강원도 평창올림픽 보면 눈이 최근에 와서, 유치할 때는 눈이 안 올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유치하고 난 이후에 매년 눈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실 금년 2월에도 폭설이 15일인가 오면서 제설비만 270억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오늘 문체부 좀 아쉽습니다. 동계올림픽의 가장 핵심이 눈이 오느냐 안 오느냐의 문제인데 눈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한 대책이 한 줄도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 그러므로 눈이 많이 왔을 때 통신의 문제, 수송의 문제, 경기장의 이동거리 문제 등등, 그렇게 됐을 때 제설작업이 어떻게 돼서 강릉이나 평창이나 가서 경기를 보고자 하는 관람의 이동 문제 등등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한 줄도 없다라는 것 굉장히 아쉽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가 돼서 국민들이나 IOC나 각국 선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 폭설이 와도 우리는 걱정 없다, 시설도 걱정 없고 이동에도 통신에도. 특히나 통신은 너무 잘 아시지만 국제대회를 하게 되면 선수단의 지도자와 선수한테 연락망, 전화를 주고 전화로 수시로 연락하는데 사실 강원도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유독 산이 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도

가면 핸드폰이 안 터지는데 이 대책을 어떡할 건가. 저는 안전대책에 가장 민감한 게 통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오늘 눈이 많이 왔다, 수시로 각 선수단에게 오늘 폭설양이 얼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기 지연은 어떻게 되고 이동은 조금 더 일찍 합니다라든지, 그래서 통신과 제설작업과 여러 가지 문제, 안전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주사고도 사실은 예측 못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눈이 올 줄 몰랐고, 예측 안 한 돌발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렇다면 돌발의 상황에 대한 대비훈련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매뉴얼이 뭔가.

매뉴얼 있습니까? 특히 동계올림픽에는 동계올림픽에 맞는 매뉴얼이 또 있단 말이지요.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되는 활동하고 봉사하는 모든 자원봉사자 그리고 관리자들 운영자들, 이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임기응변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요. 세월호에서 여자 일어선생님이 19명을 구해서 살았듯이 관리자의 역할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그런 경각심 없이 지금 이게 준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을 조금 드려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어 놓은 시설을 우리가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제가 아침에도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유럽에 가 보면 지붕이 뾰족뾰족한 이유를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눈이 많이 오는 나라는 저렇구나' 이런 것을 느끼듯이 기존 시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 시설을 최대한, 갑작스럽게 기상이변에서 오는 폭설에 대한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렸을 때 이동에 대한 문제, 통신에 대한 문제, 와이파이가 안 터지면 스마트폰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까지도 문체부가 조금 더 매뉴얼을 작성해서 홍보하고 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에리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석 위원 먼저 저희 특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분이 더 있긴 한데 의총이 열려서 많이 참석 못 한 것 말씀드리고요.

차관께서 아까 앞에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 참여 같이 하는 것, 이것 원래 장관께서 여기 나와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 같은데 문체부의 입장이 없다는 게 구체적인 참가 때의 매뉴얼이 없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북한선수단의 참가에 대해서는 원래 같이 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원래 지난번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마치 그것 자체도 지금 없는 것처럼 들려서.

북한선수단이 참가 입장을 23일 발표했는데 경기대회 참가를 공적으로 통보했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시안게임조직위에서도 지난 4월 2일……

아시안게임조직위 나오셨나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경기본부장 조영하 예.

○윤관석 위원 4월 2일 그때 김영수 조직위원장께서 이미 알 사바 아시안게임조직위원장 만나서 북한선수단이 참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경기본부장 조영하 예.

○윤관석 위원 그런 여러 가지, 또 문체부의 노력도 있고 인천시의 노력과 함께 북한선수단이 참가를 공식적으로 지난 23일 밝힌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송영길 현 시장도 계속 노력해 왔고 또 유정복 당선자도 23일 북한선수단의 입장 발표가 있자마자 환영을 뜻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문체부 담당부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가지고 참가 시에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시는 안전문제를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세워 주는 것들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마치 별로 의지가 없이 들리면 제가 볼 때는 곤란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차관께서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북한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전혀 반대를 안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참가한 이후에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OCA 차원에서 나온 그대로 국가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왕복 비행기값하고 선수단에 숙소를 무료 제공하는 그런 준비는 다 돼 있었고, 단지 아까 말씀하신 동시입장에 대해서는 저희 부처의 입장보다도 북한의 입장도 있고 또 국민들의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 좀 더 얘기를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윤관석 위원 지금 긴장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시안게임을 잘 활용해서, 참가 의사를 이미 밝힌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인해서 정부 측에서도 관계기관인 문체부에서 참가를 전제로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을, 시간이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선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다음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6월 1일 인천아시안게임의 축구 평가전 테스트 게임을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 테스트 게임 했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안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언론에 나온 것에 저희가 추후 안전점검을 했는데 일부 보충을 하면 무난하다고 지금 저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윤관석 위원 안전에 대해서 앞에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안전도 있고 운영에 대한 안전도 있고 보안적 개념의 안전도 있고 그럴 텐데 테스트 게임 하나 가지고 다 체크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첫 번째 의미 있게 한 건데, 저도 그날 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크게 문제는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그렇습니다.

○윤관석 위원 그다음에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지원법 시행령에 보면 테러 등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안전대책위원회를 두고 그 대테러·안전대책위원회는 국가정보원장이 위원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안전은 조직위가 하게 돼 있는데 대회 운영에서 다른 위험이라든가 또는 안전대책에 대해서 문화부 차원에서…… 아까 보고에도 보면 대회조직위에 안전점검반, 또 다른 대회 같은 경우도 조직위에 안전대책반 이렇게만 돼 있는데 문화부 전체 차원에서의 국제경기에 대한 대테러 이런 것 말고 안전대책에 대한 총괄적인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저희는 그것에 대해 문체부 내에서 정확히 법적으로 법에 장치가 없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괄하지 않고 조직위 자체에 지금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원님들께서 국제 관계법을 해서 안전을 할 수 있도록 대테러처럼 해 주시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관석 위원 살펴보니까 대테러에 대해서는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잘 준비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컨트롤타워가 중요하거든요. 대회시설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또는 돌발재난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조직위에만 그냥 맡겨져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부와 안행부, 추후에 조직법이 개정되면 안전처로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대회안전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총괄적으로 지휘기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한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예, 동의합니다.

○윤관석 위원 또 안전기준 제고를 위한 방안도 우리가 현재 수준에서 더 높여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모든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발사고 같은 것들도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도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문화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드리고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신속하게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윤 윤관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에리사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윤 그러면 이에리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리사 위원 우려이기는 한데요, 요즘 브라질 월드컵에도 집회·시위, 런던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국제대회 유치해 놓고 집회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문체부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집회에 대한 대비책은 없는 것으로……

○이에리사 위원 집회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예를 들면 88올림픽 때는 평화의 구역 같은 것을 설정해서 보호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집회라는 게 돌출적인 행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돌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의 시위나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에서의 대처하는 방안이 혹시 마련된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없습니다.

○이에리사 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종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재윤 이에리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기대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마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안전진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규 시설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새로 경기장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안전한 경기장을 건립하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와 또 각 조직위원회 그리고 관련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잘 점검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관련 부처와 유기적으로 연계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예방 교육 및 사전홍보의 필요성, 북한 선수단 신변 안전대책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점을 유의하여 국제경기대회 안전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백재현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실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연장했던 특위 활동기간이 이번 달 말인 6월 30일까지입니다. 2014년 5월 14일부터 발효된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활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보고서 및 연장 필요 사유를 활동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 여부에 대한 특위 차원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9월 개막될 인천아시안게임 그리고 10월에 열리게 될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또 내년에 개최될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경북문경세계군인선수권대회,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획성 있게 준비해야 하고 사후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시점에서 국회 차원의 국제경기 지원조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사님들도 저와 같은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간사와 협의하여 활동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종 차관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 기 선	김 재 윤	박 대 동	박 혜 자
백 재 현	염 동 열	윤 관 석	윤 호 중
이에리사	이 한 성	최 동 익	황 영 철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임 진 대
전 문 위 원	박 명 수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김 종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경기본부장	조 영 하